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7.6.(수) 조간 2022.7.5.(화) 11:00	배포 일시	2022. 7. 5.(화) 06:00
담당 부서 <총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책임자	과 장 김백수 (051-400-4102)
		담당자	사무관 김동수 (051-400-4210)

7~8월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대비 필요

- 슈퍼문(7월)과 백중사리(8월)로 해수면 상승 예상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7월 대조기*(7.14.(목)~17.(일))와 8월 백중사리**(8.12.(금)~15.(월))에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월 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

** 연간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여름철 고수온,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인 요인이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수로 인한 해안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연안에 조위(물높이) 관측소 33개를 설치해 조위를 측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고조정보서비스(www.khoa.go.kr/hightide)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7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팽창한 바닷물에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8월 대조기에는 여름철 고수온에 보름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7월 대조기에는 인천, 경기 안산, 충남 보령, 전북 군산, 전남 목포, 경남 마산, 제주 등 19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8월 대조기에는 이에 더해 인천 지역의 해수면이 최대 963cm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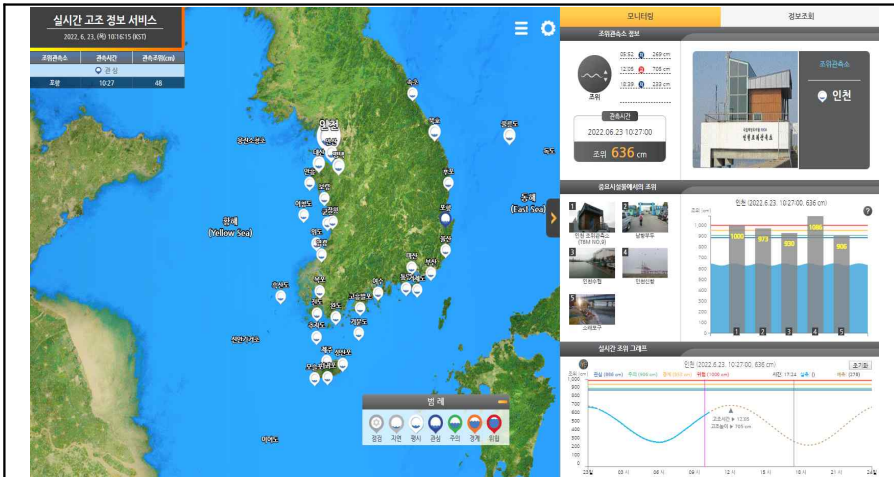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안침수사태가 발생했던 인천, 경기 안산 등 7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조기 기간 중에는 조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 등을 비롯해 국민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터넷 해양방송과 누리집 등을 통해 조위 정보를 비롯한 해양안전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www.khoa.go.kr/Onbada : See Sea TV(8:30), 내일의 바다뉴스(14:00), 내일의 해양레저(15:00)

변재영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대조기 기간에 기상 등의 영향으로 예측보다 물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태풍이 발생하여 대조기 기간과 겹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양과 기상상황에 대해 주의를 살피고 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책임자	과 장 김백수 (051-400-4102)
		담당자	사무관 김동수 (051-400-4210)
<관련부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51-400-4106)
		담당자	주무관 노재영 (051-400-4385)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 전체 화면

SEE SEA TV
2022년 6월 23일 (목) 5월 25일

조석정보

시간	조석(cm)
02:25	152
09:33	380
15:08	117
22:20	385

목포

시간	조석(cm)
04:31	138
10:18	55
17:08	145
22:43	71

마산

온바다 바다갈라짐 정보
설미도 15:54 ~ 21:20 소야도 16:09 ~ 20:59 제봉도 16:09 ~ 20:59

[See Sea TV] 2022년 6월 23일 예비특보 발표,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에 주의 / 해양방송 온바다

조회수 61회 · 2022. 6. 23.

On바다해양방송 구독자 1,711명

온바다 해양방송의 See Sea TV